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한중일 국제 심포지움 2004 Symposium on Healthcare Architecture in Asia 2004

최 광 석*
Choi, Kwang-Seok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KIHA), 중국위생경제학회(CHEA), 일본의료복지건축협회(JIHA) 3국 단체가 2004년 11월 17일부터 4일간 국제 학술 심포지움을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였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JIHA는 이번 심포지움의 호스트로서 학술발표, Hospex박람회, 의료시설건축, 일본의 고령자시설 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JIHA 창립 50주년 기념연주회를 열어 한중일 3국 관계자들 간의 친목의 밤을 마련하였다.

첫날 행사인 국제학술심포지움은 11월 17일 동경 건축회관에서 약 80여명의 3국 관계자(한국, 중국 각 20여명, 일본 40여명)가 참가하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학술발표와 토의를 진행하였다. 심포지움은 크게 개회식과 각국 의료현황보고를 거쳐 주행사인 주제발표를 A, B 섹션으로 나누어 각각 6명의 의료시설 전문가가 발표를 하였다.

개회식은 오전 9시30분 동경대학 야스시 나가사와 교수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카즈마사 오타키 JIHA회장의 환영사, 유동 CHEA 의료시설전문위원회 비서장의 개회사, 이특구 KIHA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동아시아 3국의 의료시설 현황보고가 있었다. 중국의 황시쥘 단장, 한국 의료복지시설학회 이정만 부회장, 일본의료복지시설협회 이사인 시게키 나카야마 치바대학 교수가 상호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국 의료시설의 발전과정과 전망이라는 공통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본 주제발표는 중식 후, A, B 섹션으로 나누어 3국의 의료시설에 대한 기존 사례와 연구 등을 발표하였다.



그림1. 건축회관 앞에서



그림2. 한중일 대표 협력 조인식



그림3. 심포지움 발표장 전경

* 정회원, 대불대학교 부교수, 공학박사

섹션 A에서는 황시취 단장이 좌장으로, 동경대 우에노준 교수가 부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발표는 청화대 루푸순 교수를 시작으로 쉐 오우시양 건축사, 스키 고이치 이토건축연구소 연구원, 코스케 루카 동경대 박사과정, 한양대 양내원 교수, 경남대 유명민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섹션 B에서는 한양대 이정만 교수가 좌장으로, 동경대 우에노준 교수가 부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필자의 발표를 시작으로 쉐유이 광동월포드건축 부사장, 광도국제대학 우다준 교수, 화남이공대 장춘양 교수, 카케히 아즈오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시설과학부장, 아주대 권순정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금번 심포지움의 각국 발표내용의 경향을 보면, 중국은 병원건축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으로서 시설수와 병상수, 병상당 면적의 확대, 그리고 시설의 성장변화 등이 주요 관심사임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전반적인 특성은 아니었지만, 의료시설의 변화나 동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존시설의 변화모색이 관심사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의료시설 분야도 그 나라 경제분야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일본의 산업을 쉽게 구조조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산업화가 너무나 고도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인 것처럼, 고도의 입원중심 체제인 일본의 의료계가 현재 상태에서 갑자기 그 체제를 U턴시키기에는 그동안 입원중심체제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일본의 산업화 정도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니 발도 쉽게 뻗 수 있는 것이다. 즉 구조조정이 일본에 비해 매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점이 최근 마스크를 타고 있는 소니와 삼성의 역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역전현상은 앞으로 삼성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이점이 일본의 딜레마이며, 한국의 강점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 그들은 과거의 한국과 일본이 그랬듯이 지금 엄청난 성장기에 있다. 이 성장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적다.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이 경험하였듯이 그 성장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중일 세나라는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서로간의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인지 모른다.

둘째 날에는 동경소재 Big Site에서 일본의료설비학회 주관으로 열린 의료장비전시회인 Hospex 박람회장을 견학하였다.



그림4. Big Site



그림5. Hospex 박람회장

셋째 날에는 의료시설견학 프로그램에 따라 NTT동일본 관동병원, 동경 임해병원, 동경대학병원중 하나의 시설을 참가자가 각각 선택하여 견학하였으며, Elderly Home인 Suncrea Hongo는 전 참가자가 견학하였다.



그림6. 임해병원



그림7. 동경대학병원 외래



그림8. 관동병원 병실



그림9. Suncrea Hongo

마지막 날인 11월 20일에는 오후 2시부터 건축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노인시설 사례 발표회와 JIHA창립 50주년 기념연주회에 연속으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각테일 파티를 곁들여 즉흥 연주를 들으면서 한중일 3국 관계자들간의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있었으며, 김광문 전 회장의 JIHA 50주년 창립 축사가 있었다.